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h1>보 도 자 료</h1> <p>2021. 5. 17.(월)</p>
	<p>(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p> <p>문의 : 기획처 대외협력팀 박 현 선 팀장 (02-970-5205, phs@swu.ac.kr) 이 혁 수 직원 (02-970-5206, zachary0323@swu.ac.kr)</p>

서울여자대학교, 전주시 도토리굴 새들마을 도시재생 해법 찾기 프로젝트 진행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는 지난 12~14일 전주시에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대학교, 한국해비타트, 포스코건설과 함께 「민관학협력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 - 전주시 도토리굴 새들마을 도시재생 해법 찾기」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이론 및 사례, 온라인 현장 탐방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전교육과 주민참여활동 및 문제해결 워크숍 등의 현장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한국해비타트 봉사활동과 연계한 주민참여활동과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쉼터 조성’, ‘공동체 활성화’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는 문제해결 워크숍이 이어졌다.

서울여대와 전북대 소속 학생 총 24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오르막길이 많은 도토리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실버카 제안 △빈공간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놀이터 ‘옹(翁)기종기’ 기획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보드게임과 선물나눔을 통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경관개선과 마을안전 가치창출을 위한 라이트 파이프 가든 조성 △진북교 노후

난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어르신들의 놀이터, 옹(翁)기종기’ 기획안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후 포스코건설 후원을 받아 사업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종결과발표회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여 박남춘 서울여대 SI교육센터장을 비롯하여,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 이경진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방준호 전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부단장, 이종태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본부장,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재진 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김태건 도토리굴 주민협의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민관학협력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들 간의 연결과 협업을 통한 임팩트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해비타트, 포스코건설과 함께 의정부시 신흥마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올해는 두 번째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대학교와 함께 전주시 도토리굴에서 진행되었다.

이종태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본부장은 “한국해비타트와 서울여대가 지난해 의정부에 이어 올해 전주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과 주민들이 기관, 단체들과 함께 그 일을 발전시켜나가는 이러한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모델로서, 앞으로 각 지역에 관심 있는 대학이 참여하여 이 프로젝트가 계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남춘 서울여대 SI교육센터장은 “민관학협력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살아있는 배움이 있는 유익한 경험이다”라고 말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NGO, 기업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